

8월 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주택지표로 가격부담 극복.. 다우 0.36%↑</p>	<p>뉴욕 증시가 4일(현지시간) 급등 부담을 극복하고 상승세로 마감했음. 잠정주택판매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33.63포인트(0.36%) 상승한 9,320.19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0포인트(0.13%) 오른 2,011.31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3.02포인트(0.30%) 오른 1,005.65를 각각 기록했다.</p> <p>뉴욕 증시는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개장 전부터 약세를 나타냈음. 여기에 6월 개인소득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음. 그러나 6월 잠정주택판매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자 증시는 낙폭을 급속히 축소했음. 다만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꾸준히 나오며 따라 힘겨운 반등 시도를 거듭했음. 오후장 들어서도 약보합권에 머물던 주가는 장 막판 10분 가량을 남겨두고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음. 결국 주요 저항선을 지킨 것은 물론 연중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음.</p>
<p>미국 6월 개인소득 예상치 하회</p>	<p>미국 6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4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임.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1% 감소였음. 소비는 전월보다 0.4% 증가했음.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1% 감소했음.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해 올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p>
<p>잠정주택판매 5개월째 증가</p>	<p>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6월 잠정주택판매가 전월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5배 이상 상회한 것임.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는 0.7% 증가였음. 이로써 미국의 잠정주택판매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증가세임.</p>
<p>국제유가, 美 재고증가 우려로 나흘만에 하락</p>	<p>국제 유가가 4일(현지시간) 나흘만에 하락했음. 미국의 석유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가를 끌어내렸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6센트 하락한 71.42달러를 기록했다.</p>

제목	주요 내용
오픈하이머 "중증시 석 달내 18% 하락 전망"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하이머&Co의 기술적 분석가인 카터 위스는 "상하이종합지수의 오름세가 지나치게 가팔라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없는 국면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 그는 하락의 전조로 상하이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감소를 들었다. 지난주 상하이증시의 거래규모는 5% 감소. 갑작스런 거래량 감소는 주식시장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설명. 위스는 "향후 10~15주안에 상하이지수가 하락 또는 횡보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객들에게 중국증시에 대한 보유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요타, 778억엔 분기 손실..3분기연속 적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1분기(3월~6월) 778억엔의 손실을 기록, 3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적자폭은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치 1,840억엔을 밑돌았다. 블룸버그는 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미국과 일본내 수요 둔화가 도요타의 분기 손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외화유동성 위기 사실상 종료"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모든 외환 및 경기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특히 외환 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안정되고 있어 현재로선 외환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한데다 주식 시장 상승과 환율 안정,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보유액 급증으로 외화 유동성이 금융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해 향후 대형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분석.
LG상사, 패션분할後 반기 최대 영업이익	LG상사(001120)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627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발표.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작년보다 19% 증가. 원자재와 산업재 가격이 하락해 매출은 줄었다. 2분기 매출액은 32% 감소한 1조441억원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조9,405억원, 영업이익 1,091억원, 순이익 504억원으로 각각 -31%, 72%, 37% 증감률을 기록. 환율 효과와 자원개발 수익으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 오만 웨스트부카 유전이 지난 2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해, 그 수익과 인도네시아 MPP 유연탄광 수익이 2분기 실적부터 반영됐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